

# 중소기업의 국제화 결정요인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Internationalization Determinants of Exporting SMEs in Daegu & Gyeongbuk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이희용(Hee-yong Lee)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박사수료(주저자)

윤정현(Junghyun Yoon)

Newcastle University Business School 박사수료(공동저자)

여택동(Taek-Dong Yeo)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참고문헌
III. 분석방법론	Abstract
IV. 실증결과의 해석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제화를 목표로 창업하자마자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성과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그리고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었다.

**주제어** : 수출중소기업, 국제화 결정요인, 수출지원제도, 국제화 성과

\* 본 연구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I. 서론

지난 30여 년 동안 기업의 수출(export) 및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과정은 많은 무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수출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국제화의 한 형태로서 수출이 과거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출기업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중반부터 유럽(Johanson and Vahlne, 1990)과 북미(Cavusgil, 1980)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세계의 연구흐름도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국제화, 즉 수출과정이 기업의 지식, 경험, 그리고 관리능력 등에 의존한 점진적인 기업의 몰입과정을 토대로 점차적인 단계를 걸쳐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대다수의 기업들이 국제화를 시작하기 전에 안정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위치를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10년 동안의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반드시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국제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실제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자마자 국제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며, 이들 기업을 학자들(McKinsey and Co., 1993; Harris and Li, 2007; Knight and Cavusgil, 1996)은 본글로벌(born-globals) 또는 국제신생벤처기업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보통신의 발달, 수출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서히 발생되기 시작했으며, 몇몇 연구에서(Knight and Cavusgil, 1996; Oviatt and McDougall, 1994)에서는 이를 새로운 이론으로 개념화하고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시킨 반면, 다른 연구자들(Madsen and Servais, 1997)은 이들 기업 자체의 특이성은 인정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출기업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주장에 따르면, 본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수출중소기업의 탄생에 관한 환경과 현상들이 새로운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구성개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관점에서 수출중소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화를 추진한지 많이 되지 않은 기업들의 특이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화를 지향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출지원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특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asmussen and Madsen, 2002).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개별기업의 문제를 떠나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몇 년 동안,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약

간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최근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즉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원자재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 자금,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함으로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갖추기 힘들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지용희, 1994).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집중해야 할 최대의 경영과제는 국제화 및 국제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외적요인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김수용,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위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난 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의 지원정도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의 수출확대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수출중소기업 CEO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파급효과가 있는 수출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정의 및 현황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및 수출 관련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돕는 것이 수출지원제도이다. 즉,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 수출을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여기며, 기업들의 수출을 촉

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수출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수출지원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전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 부상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모색되어지고 있다(이원민, 2007).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는 수출활동지원제도(수출상담 등)와 해외시장개발제도(해외전시회 참가 등)로 구성되고, 수출지원제도의 의도에 따라 수출 기본업무에 대한 설명회, 세미나 등의 정보적 지식(informational Knowledge) 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 지원 등으로 구별되기도 한다(Kotabe and Czinkota, 1992). 수출지원제도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관련된 제도, 기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내·외 수출인프라지원제도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지원지역 기준에 의해 살펴보면, 국내지원제도와 현지지원제도로 구별되며 지원자원의 특성에 따라 인적지원제도와 물적지원제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김인호, 1998). 전자무역시대인 현재 무역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는 대부분 업종별 단체들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복성이 크며,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실시 또는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금융, 조세, 수출입관련업무,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등의 수출지원제도와 대부분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수출지원제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또는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가 대동소이하고 획일적인데, 지역경제의 실정 및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좀 더 차별적이고 심층적인 수출지원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김인호, 2004).

## 2.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간의 관계

기업의 해외활동 필요성과 관련된 경영자의 경험이나 태도는 McDougall, Shane, and Oviatt(1994)이 국제신생벤처기업모형에서 국제화 활동수준의 예측지표로서 제안한 3가지 주요 설명요인 중 하나이다. 심지어 일부 연구들은 경영자들의 경험이나 능력, 해외시장에 대한 태도가 국제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는데(Calof and Beamish, 1994), 이는 한 사람의 창업자나 경영자가 기업 활동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업초기 단계의 소규모 기업일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McDougall et al., 1994; Preece, Miles, and Baetz, 1998). 특히 자원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독특한 자원을 탐색하고 확보하여 경쟁우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언급하고 있는데(Preece et al., 1998), McDougall et al.(1994)은 기업의 가치 있는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창업자 자신이며 이러한 창업자 역량은 기업이 해외에서 획득하는 각종 자원의 이용정도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자원의 가치도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전략경영문헌들도 경영자 관련특성이 기업의 전략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Collis, 1991). 이상의 연구들은 기업이 시장 감소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데 경영자의 경험적 지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생존 및 경쟁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미 해외활동을 경험한 경영자는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확장 전략을 보다 쉽게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해외경험이 있는 경영자 지식은 해외사업에 대한 높은 학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자의 관련 직장경험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해당 중소기업의 국제화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cDougall et al., 1994). Bloodgood, Sapienza, and Almedia(1996)와 Burgel and Murray(2000)은 창업자의 이전 직장경험이 일반 중소기업과 국제신생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지침이 되는 주요 특성이며, Kuemmerle(2002)도 자신의 사례연구에서 창업자의 관련 직장경험이 수출중소기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중소기업 창업자의 국제경험과 이전 관련 직장경험이 중소기업의 신속한 국제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구조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 고유의 성향을 기업의 조직특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조는 집권화나 분권화나, 또는 공식화된 조직이나 공식화되지 않은 조직이냐로 구분된다(반혜정, 2008). 일반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차별화된 기술특성을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연구개발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조직전체가 관련기술과 현지시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들 조직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조직의 흡수 능력이다. 흡수 능력은 말 그대로 현지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정보와 핵심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느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흡수능력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Song, Jeffery, and Jinhong, 1998). 이처럼,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Calantone,

Cavusgil, and Zhao, 2002).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획득하여 유리한 경쟁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업의 혁신 역시 경쟁기업에 의해 모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다. 기술표준화 및 기술집약도에 대한 측정변수로 특허 및 국제인증을 활용한 Bloodgood et al.(1996)은 기술혁신이 높을수록 국제화의 정도가 더욱 확대되며, 시장점유율 역시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이테크 기업의 급진적인 국제화를 강조한 McGuinness and Little(1981)은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와 함께 하이테크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져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수요가 한정되어있는 국내시장을 벗어나 국제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국내·외 인증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화 활동을 가속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기술혁신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실증 연구를 통해 Korbin(1991)은 높은 기술 집약도 및 표준화가 기업 국제화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Cooper and Kleinshmidt(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Tyebjee(1995) 역시 Cooper and Kleinshmidt(1985)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Shrader(2001)는 혁신적이고 차별화가 높은 제품을 국제신생벤처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기술적 경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이 아닌 보다 넓은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Coviello and Munro, 1997). Burgel and Murray(2000)와 Aspelund and Moen(2001) 역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더 높은 국제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Zahra, Ireland, and Hitt(2000)은 기업이 자신의 독특한 경쟁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차별적인 기업자원을 다른 기업이 손쉽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utio et al., 2000). 따라서 특정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현지국 경쟁자나 다른 국가의 현지시장 진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복제하여 수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정도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화를 수행하는 기업은 자신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해외 경쟁자에게 쉽게 모방가능하도록 이러한 모방가능성이 자신의 성장 및 생존에 어떤 위협이 될 것인지를 같이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외부요인에 관한 연구들(Oviatt and McDougall, 1999; Knight and Cavusgil, 1996; Madsen and Servais, 1997)을 살펴보면, Kaynak and Kothari(1984)의 경우, 수입제한 등 외국정부의 현지시장진출규제정책, Chen and Martin(2001)은 자국시장의 경쟁증가와 자국시장크기의 감소, Kaynak and Kothari(1984)는 해외에서의 새로운 수익 및 성장기회의 발견이 국제신생중



소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중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시장 조건이 핵심적(Bloodgood et al., 1996; Rasmussen et al., 2001; Moen, 2002)임을 지적하고 있다. Oviatt and McDougall(1994; 1999)은 수출중소기업이 활동하는 시장 환경특성으로 해당 시장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며 경쟁자의 반응이 매우 신속하여 시장 경쟁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Coviello and Munro(1994)는 수출중소기업이 매우 격렬한 국내시장경쟁과 신속한 시장구조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수출중소기업의 유일한 성장목표로 국제화를 지향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Tyebjee 1994). 특히 높은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특성이 있는 고기술/지식집약형 산업에서 높은 시장경쟁은 해당 산업에서 경쟁우위 확보에 소요되는 관련 자원에 관한 경쟁을 촉발시켜 해당 기업들에게 가격하락 압력과 더불어 기업의 수익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이와 같은 경쟁적 상황은 중소기업에게 제품 판매량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넓은 해외시장지역에 관한 관심과 진출을 제안하게 된다(Kandasaami and Huang, 2000). 또한 Madsen and Servais(1997)는 자국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국가의 수출중소기업은 주로 첨단 산업분야에 속하며 차별적인 기술과 제품을 이용하여 국제화를 신속히 수행함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Chen and Martin(2001)은 미국 전자부품 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시장크기가 작은 소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조기에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는 수출중소기업의 조직특성, 환경특성, 그리고 기술특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특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시장정보관리는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연구개발능력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영자특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경영관리능력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글로벌지향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환경특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해외시장환경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국내시장환경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술특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기술역량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기술모방성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수출지원제도와 국제화 간의 관계

해외 관련연구는 국내 보다는 오래 전에 수출지원제도 및 인지도, 활용도 그리고 수출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해 왔다. 이와 관련된 효시적인 연구를 시도한 Bilkey(1978)는 기업의 수출 경험 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합한 수출지원제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기업의 3단계는 ‘수출경험이 있는 수출중소기업’, ‘수출경험이 없는 비수출기업’, ‘수출을 시도하지 않는 기업’ 등으로 그룹화 하여 각 단계별로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통화의 가치절하와 수출장벽의 제거를 통한 수출증대 지원정책이, ‘수출경험이 없는 비수출기업’은 주문을 수주하거나 수출확대제도와 수출자문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개시 유도정책이, ‘수출을 시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수출의 매력을 촉진시키는 정책(무역유관기관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등)이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Wiedersheim-Paul, et al.(1978) 등은 수출기업들의 본격적인 수출활동 이전에 투입하는 기업의 수출관련 인력수준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활용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또한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출지원제도와 활용도에 관련된 주요 선행적인 연구로는 Kedia and Chhokar(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 기계제조 중소기업과 식품가공 중소기업 96개(비수출기업 포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은 각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인지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우 저조함을 밝혔다. 수출단계에 따른 수출지원제도의 변화와 적절한 지원제도의 조합을 강조한 Kotabe and Czinkota(1992)는 중소기업의 수출단계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수출절차, 수출관여도, 재무나 마케팅정보 활용능력, 관리능력, 수익성, 수출성고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국제화 수준, 즉 해외시장에서의 개입정도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요구와 관심 및 효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주장하였다. Naidu and Rao(1993)는 국제화 정도를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의 정도에 따라 ‘비수출기업’, ‘수출의도기업’, ‘비정규수출기업’, ‘정규수출기업’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수출기업의 범주별로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출지원제도의 실효



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수의 매개변수, 상호작용과 지체효과, 현상의 다차원적 특성 및 정확한 측정도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전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 기대한 편익과 사후적으로 실현된 편익을 비교하는 질적인 차원의 평가방법의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oimi(1998)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111개 중소기업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수출지원제도의 적절성(adequacy)과 인지도(awareness)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은 상기 언급한 적절성 및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697개 노르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수출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한 Weaver, Berkowitz and Davies(1998)는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경쟁자 분석정도와 시장상황에 있어 판매액 증대, 성장기회, 이익률에 대한 문제, 포장관련 사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정책, 가격문제 등에 대한 기업의 대내·외적 변수를 측정하면서 이러한 변수들이 정부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가를 조사·분석하였다. 8,761개 기업(수출기업은 1,212개로 13.8% 차지)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Gençturk and Kotabe(2001)는 기업의 성공적인 국제화에 수출지원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기능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WilKinson and Brouthers(2006)은 미국의 주정부차원에서 수행해 온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조사대상 기업들의 마케팅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하였으며, 경영자관점을 도입하여 경영자원을 통제할 경우 전시회 및 거래선 발굴 등의 프로그램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관계를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수출성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수출지원제도 자체가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란 문제의 명확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즉,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출을 결정하는 내부·외부요인들과 수출중소기업이 추구하는 수출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실제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먼저, 부산에 소재한 중소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와 국제화 결정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고경순·최성철·김동률(1990)은 수출지원제도의 높은 인지도와 효율적인 활용도가 중소기업 국제화를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 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강원도 소재 중소무역업체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IMF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다각적

인 방안을 제시한 이강빈(1999)은 무역인프라구축, 해외전시회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의 확대 정책이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제화 활동을 하고 있는 14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와 국제화 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박광서·안중석(2001)은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언급하면서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업 그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재휘(2004)는 국내 5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와 국제화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수출지원제도와 국제화 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과 수출몰입도가 낮은 기업, 해외사업경험이 많은 기업, 최고경영자가 해외시장 지향적인 기업일수록 수출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2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정재승(2006)은 국제화 성과와 수출지원제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임소진·이용완·김윤정(2008)은 제주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현황, 수출관련 기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추진 및 미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수요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수출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수출지원제도가 국제화 성과와 중소기업 국제화 결정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수출지원제도는 조직특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5-1. 수출지원제도는 시장정보관리와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5-2. 수출지원제도는 연구개발능력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6. 수출지원제도는 경영자특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6-1. 수출지원제도는 경영관리능력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6-2. 수출지원제도는 글로벌지향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7. 수출지원제도는 환경특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7-1. 수출지원제도는 해외시장환경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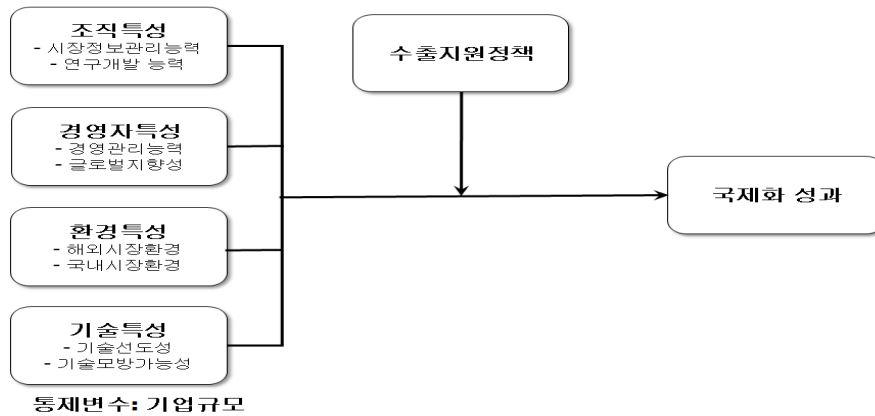
가설 7-2. 수출지원제도는 국내시장환경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8. 수출지원제도는 기술특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8-1. 수출지원제도는 기술역량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가설 8-2. 수출지원제도는 기술모방성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III. 분석방법론

#### 1. 모집단의 정의와 표본추출

수출중소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전수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기업을 분류한 본 연구자는 국내에 존재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부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8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65.6%).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 답이 표기되지 아니한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1부를 제외한 31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기술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모든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창업년도 역시 과반수 이상의 응답 기업들이 4년 이상 된 기업임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의 응답기업 모두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설문지 기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현상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Podsakoff and

Organ, 1986). 따라서 동일방법편의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2758.426(df=362, p=.000)$ ,  $\chi^2/df=7.620$ , GFI=.644, AGFI=.572, RMSEA=.145, 그리고 RMR=.109 등으로 모델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표 본 수		
	명	비율 (%)	
종업원수	50명 미만	101	35.1
	50-100명 미만	100	31.5
	100-300명 미만	103	32.5
	Missing Value	3	0.9
창업년도	1-3년	1	0.3
	4-6년	30	9.5
	7-10년	96	30.3
	11년 이상	187	59.0
	Missing Value	3	0.9
해외수출경험년수	1년 이내	82	25.9
	1-3년	103	32.5
	4-6년	127	41.1
	Missing Value	5	1.5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 1) 조직특성

조직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장정보관리와 연구개발능력 등의 구성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설문항목 5개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반혜정(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끝으로 연구개발능력은 기업이 연구개발 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지를 나타내며, 끝으로 시장정보관리는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시장정보를 얼마나 잘 획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의미한다.

### 2) 경영자특성

경영자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관리능력과 글로벌지향성의 구성개념을 사용하였다. 최고경영자가 경영을 함에 있어 그리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활용하는 자

신의 관리능력을 경영관리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국제화 경험 및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우리는 글로벌지향성이라 말한다. 이의 측정을 위해 Chen and Martin(2001)과 Collis(1991)의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설문항목 5개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환경특성

본 연구에서는 환경특성으로 국내시장환경, 해외시장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국내시장환경은 국내시장의 경쟁 정도와 경쟁자의 시장대응도, 그리고 국내시장 매력도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해외시장환경은 해외시장의 규모와 투자위험도, 매력도 등으로 해외시장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설문항목(각 3개)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Narver and Slater(1990)의 연구와 Knight(2000), 그리고 박근호·노승재·임효창(2007)의 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수정·활용하였다.

### 4) 기술특성

본 연구에서 또 다른 국제화 결정요인으로 기술특성을 들고 있다. 기술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총 2개의 구성개념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얼마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기술역량,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모방성 등으로 기술특성을 측정하였다. 이 설문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포(2000)의 연구를 토대로 각각 4개의 설문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5) 수출지원제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재무적·비재무적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박광석·안종석(2001)과 고용기·배정환(2008)의 연구를 토대로 4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6) 국제화 성과

기업의 국제화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진입 국가 수나 국가별 주주와 같은 구조적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외자산이나 해외매출액 및 현지법인 수

등의 성과척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타 최고경영층의 특성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된 수출재무성과를 사용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Qian(2002)와 조대우·제혜금·임성범(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 3.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항목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탐색적 연구의 경우,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Nunnally, 1967).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개념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의 요인추출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인행렬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항 목 수	$\alpha$ 계수
독립변수	조직특성	연구개발능력	.871
		시장정보관리	.893
	경영자특성	경영관리능력	.919
		글로벌지향성	.881
	환경특성	해외환경	.663
		국내환경	.691
	기술특성	기술역량	.947
		기술모방성	.894
조절변수	수출지원제도	3	.876
종속변수	국제화 성과	6	.945



### 1) 신뢰도 분석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0.663에서 0.951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Nunnally(1967)가 말하는 신뢰도의 기준인 0.6을 넘고 있어 모든 변수들이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상관계수를 이용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을 동일한 차원의 항목으로 분류해주는 통계분석기법이다. 이에 요인분석에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라는 기본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즉,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요인으로 묶인다는 것 자체가 변수들(구성개념)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중환, 2008).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Joseph, Wolfson, and Berger, 1995), 요인행렬의 회전은 직각회전방식(Varimax)방식을 택하였다.

<표 3> 조직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성 분	
	요인1 (시장정보관리)	요인2 (연구개발능력)
해외시장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758	
새로운 해외시장정보에 신속히 대응	.838	
해외시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799	
해외시장정보를 제품개발/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	.738	
구성원들 간 해외시장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71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산업평균 이상		.738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		.770
주력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은 경쟁사 대비 우수		.851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활동에 관심이 높음		.806
Eigen-Value	6.610	1.754
설명변량(%)	50.848	13.490

**(1) 조직특성 변수의 타당도 분석**

조직특성변수인 시장정보관리와 연구개발능력과 관련된 설문측정값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분산이 64.338% 설명력을 갖는 2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 즉 시장정보관리(요인1), 연구개발능력(요인2)의 고유치는 각각 6.610, 1.754로써 이것은 요인추출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특성변수들의 요인적재치 모두가 0.717 이상이므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2개 요인들은 전체변량에 시장정보관리가 50.848%, 연구개발능력이 13.490%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누적 64.338%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 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 경영자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성 분	
	요인1 (경영관리능력)	요인2 (글로벌지향성)
최고경영진은 기술 및 제품 트렌드를 잘 파악	.879	
최고경영진은 핵심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870	
최고경영진은 국내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의 시너지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740	
최고경영진은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나	.937	
최고경영진은 대외업무능력이 뛰어나	.897	
최고경영진은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		.792
최고경영진은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음		.835
최고경영진은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의지가 있음		.845
최고경영진은 해외시장진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		.837
최고경영진은 수출활동을 중요시 여김		.798
Eigen-Value	4.484	2.893
설명변량(%)	44.838	28.935

**(2) 경영자특성 변수의 타당도 분석**

경영자특성변수인 경영관리능력과 글로벌지향성과 관련된 설문측정값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분산이 73.773%의 설명력을 갖는 2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 즉 경영관리능력(요인1), 글로벌지향성(요인2)의 고유치는 각각 4.484, 2.893으로써 이것은 요인추출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특성변수들의 요인적재치 모두가 0.740 이상이므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환경특성 변수의 타당도 분석

환경특성변수인 해외시장, 국내시장과 관련된 설문측정값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분산이 74.626%의 설명력을 갖는 2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 즉 국내시장(요인1), 해외시장(요인2)의 고유치는 각각 1.855, 1.130으로써 이것은 요인추출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특성변수들의 요인적재치 모두가 0.767 이상이므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환경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성 분	
	요인1 (국내시장)	요인2 (해외시장)
주력제품에 대한 향후 국내시장 전망은 매우 밝음	.864	
주력제품의 국내시장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855	
주력제품의 해외시장 규모는 매우 큰 편임		.767
주력제품의 해외시장에서 경쟁업체간 경쟁강도가 높은 편임		.879
Eigen-Value	1.855	1.130
설명변량(%)	46.379	28.247

이 4개 요인들은 전체변량에 국내시장이 46.379%, 그리고 해외시장요인이 28.247%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누적 74.626%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 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 (4) 기술특성 변수의 타당도 분석

기술특성변수인 기술역량, 기술모방성과 관련된 설문측정값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분산이 81.974%의 설명력을 갖는 2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 기술역량(요인1), 기술모방성(요인2)의 고유치는 각각 3.515, 3.043으로써 이것은 요인추출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특성변수들의 요인 적재치 모두가 0.825 이상이므로 높은 수준

의 타당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5개 요인들은 전체변량에 기술역량이 43.935%, 기술모방성이 38.039%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누적 81.974%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 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6〉 기술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성 분	
	요인1 (기술역량)	요인2 (기술모방성)
해당시장의 기술을 정상에서 선도하고 있음	.946	
해당제품에 탑재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905	
경쟁기업과 비교해서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음	.936	
시장에서의 기술력은 우위에 있다고 인정받고 있음	.926	
우리 회사의 기술은 범용적으로 사용됨		.873
우리 회사의 기술은 관찰에 의해 학습이 가능		.921
우리 회사의 기술은 일상작업의 반복으로 학습이 가능		.861
우리 회사의 기술은 모방가능성이 높음		.825
Eigen-Value	3.515	3.043
설명변량(%)	43.935	38.039

## IV. 실증결과의 해석

### 1.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특성과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 즉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 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 수출지원제도, 그리고 국제화성과 간의 관계를 보면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설의 검증

### 1) 가설 1, 2, 3, 4의 검증

<표 8>는 본 연구의 선행변수, 즉 국제화 성과의 결정요인인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 변수, 환경특성변수, 그리고 기술특성변수가 국제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며,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을 좀 더 순수하게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종업원수)를 통제한 뒤에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평균	표준 편차	기업 규모 (1)	연구 개발 (2)	수출 정보 (3)	해외 환경 (4)	국내 환경 (5)	지원 제도 (6)	기술 역량 (7)	기술 모방 (8)	국제화 (9)
(1)	3.0064	1.63819	1								
(2)	3.8738	.86640	-.014	1							
(3)	3.6921	.76429	-.004	.556**	1						
(4)	3.7965	.78681	-.005	.187**	.381**	1					
(5)	3.2240	.85147	.169**	.361**	.495**	.255**	1				
(6)	4.0347	.87943	-.241**	.472**	.675**	.363**	.168**	1			
(7)	3.7823	.79751	.037	.678**	.412**	.149**	.400**	.276**	1		
(8)	2.9004	.91530	.168**	-.003	.141*	.240**	.376**	.178**	.001	1	
(9)	3.6399	.93667	.081	.281**	.550**	.421**	-.259**	.534**	.274**	.206**	1

\* P<0.05, \*\* P<0.01

<표 8> 국제화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국제화 성과		
	$\beta$	t	Sig.
(Constant)		-5.379	.000
종업원수	.097	2.280	.023
시장정보관리	.031	.465	.642
연구개발능력	.352	4.864	.000
경영관리능력	.046	.716	.475
글로벌지향성	.624	10.384	.000
해외시장환경	.191	4.309	.000
국내시장환경	-.021	-.334	.738
기술역량	.426	6.896	.000
기술모방성	.109	2.363	.019
R <sup>2</sup>		.508	
F		34.760	
P		.000	

먼저, 조직특성변수 중 연구개발능력( $t=4.864$ ,  $p=0.000$ )만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경영자특성 변수 중에서는 글로벌지향성만( $t=10.384$ ,  $p=0.000$ )이, 그리고 환경특성변수 중에서는 해외시장환경( $t=4.309$ ,  $p=0.000$ )이, 끝으로 기술특성 변수 중에서는 모든 하위변수, 즉 기술역량( $t=6.896$ ,  $p=0.000$ )과 기술모방성( $t=2.363$ ,  $p=0.019$ ) 모두 변수가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국제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에 맞는 해외 환경에 따라 국제화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의 글로벌지향성이 국제화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성과 향상을 위해서 수출중소기업의 기술특성, 즉 기술역량과 기술모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정보관리와 경영관리능력, 그리고 국내시장환경은 국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수출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명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국제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국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하위가설 1-2, 2-2, 3-1, 4-1, 4-2는 채택되고, 있으면 가설 1, 2,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가설 4는 완전 채택됨을 알 수 있다.

## 2) 가설 5, 6, 7, 8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그리고 기술특성변수가 국제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수출지원제도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규모를 통제 한 뒤, SPSS 15.0을 이용하여 계층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9>는 이상의 조절회귀분석 결과표이다.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그리고 기술특성변수와 수출지원제도가 상호작용하여 국제화 성과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 5, 6, 7, 8의 검증을 위해, 1단계에 독립변수(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만을 넣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함께 수출지원제도 변인을 넣었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함께 수출지원제도 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와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넣어 유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증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선 조직특성의 경우에는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 및 연구개발능력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



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영자특성변수의 경우, 경영관리능력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그리고 환경특성변수의 경우 해외시장환경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으며, 기술특성의 경우에는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따라 국제화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 모두가 투입되어 있는 3단계 Full 모형의 R2값이 0.551이고 F값이 22.271(P<0.000)로 모형의 수렴성과 설명력을 갖춘 유의미한 모형으로 판단되어지며, 독립변수만으로 이루어진 1단계 모형(R2=0.508, F=34.760, P<0.000)과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만으로 이루어진 2단계 모형(R2=0.530, F=34.023, P<0.000)보다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9> 국제화 성과에 대한 조절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국제화		
	1단계	2단계	3단계
종업원수	.097*	.150**	.087
시장정보관리	.031	.075	-.497
연구개발능력	.352**	.378**	-.364
경영관리능력	.046	.047	-.452
글로벌지향성	.624**	.556**	1.587**
해외시장환경	.191**	.164**	-.112
국내시장환경	-.021	.044	.779**
기술역량	.426**	.392**	.525
기술모방성(-)	.109*	.060	-.124
수출지원제도		.243**	1.092**
시장정보관리*수출지원제도			1.198**
연구개발능력*수출지원제도			1.295*
경영관리능력*수출지원제도			1.491*
글로벌지향성*수출지원제도			.411
해외시장환경*수출지원제도			.761*
국내시장환경*수출지원제도			-.602
기술역량*수출지원제도			2.569**
기술모방성(-)*수출지원제도			.484
R <sup>2</sup>	.508	.530	.551
△R <sup>2</sup>	-	.022	.021
F	34.760	34.023	22.271
P	.000	.000	0000

\* P<0.05, \*\* P<0.01

그리고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가 상호작용하였을 때( $\beta=1.198$ ,  $P<0.01$ ), 그리고 연구

개발능력과 수출지원제도가 상호작용하였을 때( $\beta=1.295$ ,  $P<0.05$ ),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특성변수 중 경영관리능력( $\beta=1.491$ ,  $P<0.01$ )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그리고 환경특성변수 중 해외시장환경( $\beta=0.761$ ,  $P<0.05$ )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 역시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술특성변수 중에는 기술역량( $\beta=2.569$ ,  $P<0.01$ )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자가 주장하고 있는 가설 5, 6, 7, 8은 부분적으로 채택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위가설 5-1, 5-2, 6-1, 7-1, 8-1이 채택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출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및 국제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연구되었던 국제화 성과 결정요인(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과 함께 수출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와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그리고 기술모방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국제화 성과 결정요인, 즉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변수, 기술특성변수와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수출지원제도가 시장정보관리,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의 설명과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성과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 중에서 4가지 특성변수만 가지고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즉, 계량학적 접근을 통해 해석하는 연구에 치중하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담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에는 양적 연구방법이 아닌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현장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 결정요인이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산업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용기·배정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2008, pp.189-209.
- 고경순·최성철·김동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12권 제2호, 1990, pp.3-29.
- 김수용,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방안”,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04.
- 김인호, “지역중소제조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98 지역경제진흥 연구보고서」, 1998.
- 김인호, “중소제조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와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1권, 2004, pp.17-46.
- 김정포, “중소기업 경영자 특성과 기업 기술능력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논집」, 제15권, 2000, pp.127-153.
- 박근호·노승재·임효창, “국내 벤처기업 수출시기와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2007, pp.41-66.
- 박광석·안종석,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1, pp.149-167.
- 반혜정, “기업 내부자원이 국제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2008, pp.357-380.
- 이강빈, “IMF시대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방안”, 「무역학회지」, 제24권 제3호, 1999, pp.180~181.
- 이원민,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종환,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고양: 공동체, 2008.
- 임소진·이용완·김윤정, “제주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pp.257-289.
- 정재승,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재휘,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의 결정변수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대우 · 제혜금 · 임성범 “한국 벤처기업의 국제화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13권 제4호, 2009, pp.95-122.
- 지용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서강하버드비즈니스」, 1994, pp.86-92.
- Autio, E., H.J. Sapienza, and J.G. Almeida, “Effects of Age at Entry, Knowledge Intensity, and Imitability on International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2000, pp.909-924.
- Bilkey, W.J., “An Attempted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 on the Export Behavior of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9, No.1, 1978, pp.33-46.
- Burgel, O. and G.C. Murray, “The International Market Entry Choices of Start-up Compan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Vol. 8, 2000, pp.33-862.
- Calantone, R.J., S.T. Cavusgil, and Y. Zhao,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 No.6, 2002, pp.515-524.
- Cavusgil, S.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Firms,” *European Research*, Vol. 8, No.6, 1980, pp.273-281.
- Coviello, N.E. and H.J. Munro, “Growing the Entrepreneurial Firm: Networking for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29, No.7, 1995, pp.49-61.
- Eisenhardt, K.M. and C.B. Schoonhoven, “Organizational Growth: Linking the Founding Team, Strategy, Environment and Growth among U.S. Semiconductor Ventures 1978-1988,”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1990, pp.504-529.
- Harris, R.I.D. and Q. Li, “Firm Level Empirical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Exporting to UK Productivity Growth,” Report to UK Trade and Investment, 2007.
- Joseph, L., D.B. Wolfson, and R.D. Berger, “Sample Size Calculations for Binomial Proportions Via Highest Posterior Density Interval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tatisticians*, Vol. 44, 1995, pp.143-154.
- Kandasaami, S. and X. Huang,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of SMEs: A Comparison of Born-global vs Non Born-global Firms in Australia,” Paper presented at the ICSB Conference, Brisbane, 2000.
- Kedia, B.L. and J.S. Chhoka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xport Promotion Program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21, No.2, 1986, pp.13-20.
- Knight, G.,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Strategy: The SME under Globalization,” *Journal of*

- International Marketing, Vol. 8, No.2, 2000, pp.12-33.
- Knight, G.A. and S.T. Cavusgil, "The Born Global Firm: A Challenge to Traditional Internationalization Theory,"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Vol. 8, 1996, pp.11-26.
- Kotabe, M. and M.R. Czinkota, "State Government Promotion of Manufacturing Exports: A Gap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3, No.4, 1992, pp.637-659.
- Madsen, T.K. and P. Servai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orn Globals: An Evolutionary Proc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6, No.6, 1997, pp.561-583.
- McDougall, P.P., S. Shane, and B.M. Oviatt, "Explain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The Limits of Theories from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9, 1994, pp.469-487.
- McGuiness, N.W. and B. Little, "The Influence of Product Characteristics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New Industrial Products," *Journal of Marketing*, Spring, 110-122.
- McKinsey & Co., *Emerging Exporters: Australia's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Exporters*, Melbourne: McKinsey & Co., Australian Manufacturing Council, 1993
- Moen, Ø., "The Born Globals: A New Generation of Small European Exporter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19, 2002, pp.156-175.
- Oviatt, B.M. and P.P. McDougall,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celerated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In R. Wright (Ed.), *Research in Global Strategic Management*, Vol. 23-40. Stamford, CT: JAI Press, 1999.
- Preece, S.B., G. Miles, and M.C. Baetz,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Intensity and Global Diversity of Early-stage Technology-bas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4, 1999, pp.259-281.
- Qian, G., "Multinationality, Product Diversification, and Profitability of Emerging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7, 2002, pp.611-633.
- Rasmussen, E.S. and T.K. Madsen, "The Born Global Concept," Paper for the 28th EIBA Conference, 2002
- Rasmussen, E.S., T.K. Madsen, and F. Evangelista, "The Founding of the Born Global Company in Denmark and Australia: Sense Making and Networking,"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Vol. 13, 2001, pp.75-107.
- Shrader, R.C.,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in Foreign Markets: The Case of Young



- 
- High-technology Manufacturing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4, 2001, pp.5-60.
- Shrader, R.C., B.M. Oviatt, and P.P. McDougall, “How New Ventures Exploit Trade-offs among International Risk Factors: Lessons for the Accelerate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2000, pp.1227-1248.
- Song, M.R., T. Jeffrey, and X. Jinhong, “Patterns of Cross-Functional Joint Involvement Across Product Development Stages: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15, 1998, pp.289-303.
- Wiedersheim-Paul, F., H.C. Olson, and L.S. Welch, “Pre-Export Activity; The First Step in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No.1, 1978, pp.47-58.

## ABSTRACT

# The Impacts of Internationalization Determinants of Exporting SMEs in Daegu & Gyeongbuk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Hee-yong Lee\* · Jung-hyun Yoon\*\* · Taek-Dong Yeo\*\*\*

Increased attention has worldwide been given to exporting SMEs pursuing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from their inception. In spite of the limited resources, exporting SMEs have entered in global markets successfully and then improve their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regarding internationalization in exporting SMEs. Using a survey of 317 exporting SMEs, this study designated organizational, entrepreneurial,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as well as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export support programs of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ly, R&D capacity, globalization-orientation, international market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e.g. technological capacity and imita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ternational performances. Finally, it is found that export support programs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ket information management, R&D capacity, management capacity, international market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capacity,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if exporting SMEs would not use export support programs effectively,, they could not improv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As well, several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direc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exporting SMEs, internationalization determinants, export support program,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

\* Ph.D Candidate, School of International Economic &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 Ph.D Candidate, Newcastle University Business School

\*\*\*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Economic & Business, Yeungnam University